

+ 김진팔 · OBS 경인TV 기술국장

소통의 여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각계의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에 대한 인정이다. 바로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맞아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 주며, 따뜻한 공감을 먼저 표시한다면 소통이 한결 자연스러워 질 것이다. 방송엔지니어 업무의 최종가치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갑자기 떨어진 중책을 맡아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니 뭐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만 지우지 않았는지 마음 한 켠에 씩씩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태웠지만, 이것저것 기획하고 정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8개월이라는 수고가 남은 2009년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

올해 방송가는 정신없는 한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변화가 너무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 미리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힘겨워 보인다. 따라가다가 적응도 하기 전에 지쳐 할떨거리면, 또 다른 변화가 밀려온다. 앞만 보고 달려도 될까 말까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말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엔지니어로 성숙되기 위한 준비와 자기혁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방송가의 변화는 단지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모적 논쟁과 투쟁만 뒤따르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합의된 혁신의 방법을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일에서 개인의 아집과 현실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식이 복합적인 변화의 시대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엔지니어라고 첨단 디지털 기술에만 집착하면 변화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송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각계의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에 대한 인정이다. 바로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맞아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 주며, 따뜻한 공감을 먼저 표시한다면 소통이 한결 자연스러워 질 것이다. 방송엔지니어 업무의 최종가치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기보다는 뭔가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엔지니어들은 디지털의 쌍방향성을 강조하면서도 "0" 아니면 "1"이라는 일방통행식 논리로 무장돼 있다.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기 쉽다. 서로 간에 주파수를 맞추고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 소통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견해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상호보완의 평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낮만 보는 해님은 세상은 일만 하는 곳이라 주장하고, 어두운 밤만 보는 달님은 세상은 잠만 자는 곳이라고 우긴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복잡한 시대에 다양한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 없이 어느 부문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속단은 피해야겠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대는 신기술이 신문화를 창조하고 또 신문화가 신기술을 이끌어가는 상호보완의 기술문화시대다. 소통을 통해야 기술문화시대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한편으로 전혀 새로운 것도 창조해 낼 수 있다. 다양한 독서도 방송엔지니어의 원활한 소통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송엔지니어는 참으로 바쁘다. 여전히 시끄러운 미디어업, 2012년 디지털전환, 쏟아지는 신기술과 신 장비 등. 바쁘고 바쁠수록 한 편으로 외로운 법이다.

사람이란 예측 불가능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설명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그 원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 곧 수긍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단다.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소통의 여유가 필요할 때이다. 벽이 처진 조직은 간단한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연스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적인 공감대 형성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다.

소통은 넘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게 해주므로 새로운 창조의 삶과 지극히 자연스런 인간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중에 희망만큼 꼭 필요하고 강력한 것은 없다. 우리 모두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마음을 열고 소통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일련의 모든 가치창조의 중심은 물론 사람인 것을 잊지 말자.

방송기술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의 엔지니어보다는 시대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면서, 동료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엔지니어가 됐으면 한다. 똑똑한 엔지니어는 넘쳐난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행복한 엔지니어"가 되길 기대한다.

느림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선배님, 후배님, "소주 한잔 합시다."